

‘전지적 참견 시점’ 만의 예능인 다시보기



‘전지적 참견 시점’이 이영자, 유병재, 홍진영까지 시청자에게 익숙한 예능인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모은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3월 첫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매니저의 시선으로 스타들을 바라보는 관찰 예능이다.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화자를 매니저로 설정하는 색다른 장르로 최근 쏟아지는 관찰 리얼리티의 또 다른 변주 시도를 시도했다. 덕분에 ‘전지적 참견 시점’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파

달에서 정규 편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색다른 장르로 최근 쏟아지는 관찰 리얼리티의 또 다른 변주 시도를 시도했다. 덕분에 ‘전지적 참견 시점’은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파

이영자·유병재·홍진영 매력 눈길 ‘관찰 리얼리티’의 또다른 변주 시도

게 됐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모두 시청자에게 수없이 노출된 스타 예능인이라는 점이다. 프로그램 장르도 흔하고, 출연진도 그 누구보다 익숙하다. 자칫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합이다. ‘전지적 참견 시점’의 톤칭 당시에도 ‘진부할 것 같다’는 시선이 다수였다. 하지만 초집만 달리 하는 것만으로도 ‘전지적 참견 시점’은 신선함 이상을 선사했다. 시청자에게 명MC로 익숙한 이영자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첫 리얼리티에 도전했다. 자신의 일상을 과감하게 공개한 이영자는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자신만의 맛과 멋을 전했고, ‘형자비식회’라는 별

명까지 얻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때로는 멀게 느껴지던 특급 연예인에서 SNS를 뜨겁게 달구는 인플루언서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유병재 또한 마찬가지. 유병재는 ‘SNL코리아’부터 ‘무한도전’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예능인이다. 하지만 그의 수줍음 많고 낮가림 심한 인간 유병재의 모습을 보여준 건 ‘전지적 참견 시점’이 처음이었다. 덕분에 유병재는 수줍음 뒤에 꿈틀거리는 ‘관중 본능’을 또 다른 캐릭터로 내세울 수 있게 됐고, 유병재의 실제 모습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로 2차 가공되면서 프로그램과 유병재 모두 화제성을 사로잡게 됐다. 지난 14일 첫 등장한 홍진영은

‘갯데리’라는 별명으로 이미 예능계에서는 흥 넘치는 아이코닉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그 흥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보태 흥’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홍진영을 또 한 번 새롭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 ‘방송용 이미지’로 오해 받았던 그의 넘치는 흥이 주변까지 즐겁게 만드는 모습은 시청자들도 흐뭇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익숙한 인물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전지적 참견 시점’만의 매력이자 승부수다. 쏟아지는 관찰 예능 사이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 주요 예능 시간대에 한 달 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어떤 익숙한 인물이 등장해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의 기세를 몰아 ‘전지적 참견 시점’이 앞으로도 익숙한 예능인들의 새로움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인다.

전국 여심 들썩 ‘예쁜 누나’ 열풍, 괜한 신드롬이 아니다



‘예쁜 누나’ 열풍이 불었다. 6살 연하인 동생 친구 혹은 친구 동생과 짜릿한 비비연애가 전국 여심을 들썩이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극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그 주인공이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지난달 30일 첫 방송 이후 매회 시청률이 상승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4일 방송된 6회는 시청률 6.2%(닐슨코리아 집계, 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한 2049 타깃시청률 역시 4.1%를 나타내며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이것이야말로 연애 대리 체험 무엇보다도 현실에 있을 법한 연애담을 자극적이지 않게 그려낸 제작진의 공이 크다. 대본을 쓴 김은 작가는 공감대 수 높은 대사와 상황 설정으로 시청자를 꼭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의 작업은 굉장히 영리하다. 30대 평범한 직장인 ‘윤진아’(손예진)는 현실적인 캐릭터로 설정. 시청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남자주인공 ‘서준희’(정해인)에겐 관타지를 부여해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든다.

온라인 상의 반응도 난리다. 방송 직후 전개에 대한 설렘을 나타낸 댓글들이 쏟아졌고, 주연인 손예진, 정해인에 대한 환호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설레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누구나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연애의 판타지를 여주인공이 실현해내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을 대입하게끔 한다. 마치 연애 대리 체험을 하는 느낌마저 준다. 또한 ‘하얀 거탑’ ‘빌리’ ‘풍문으

로 들었소’ 등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사랑을 받은 안판석 PD가 예쁜 영상, 감각적인 편집 등으로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연출해 그 매력을 배가한다.

■ 귀까지 적시는 촉촉한 OST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음악이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귀를 촉촉히 적시는 OST를 적절히 배치해 극 중 두 남녀의 로맨스를 더욱 극적으로 비치게 한다.

카를라 브루니의 ‘스탠드 바이 유어 맨(Stand By Your Man)’과 브루스 윌리스의 ‘세이프 더 라스트 댄스 포 미(Save The Last Dance For Me)’, 레이철 아미카타의 ‘섬씽 인 더 레인(Something In The Rain)’ 등은 드라마 곳곳에 삽입되면서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에 일조한다. 제작진의 선곡이 적절했다는 건 온라인 음악사이트 음원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곡들은 방송이 끝난 뒤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오르려는가 하면, 기존 발표된 곡들은 ‘역주행’까지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무기는 이처럼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계산법에 있었다. 여기에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손예진과 신선한 얼굴의 정해인의 ‘완벽 호흡’이 더해지니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로맨스물이 탄생했다. 스펙터클한 사건이나 자극성 강한 설정은 없지만 공감과 관타지를 적절히 배치해 여심을 제대로 저격 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신드롬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6년 만의 복귀’ ‘리메이크작’ 장동건·한가인, 4월 말 동반 습격



4월 말 톱스타들이 브라운관을 점령한다. 주인공은 장동건과 한가인이다. 장동건과 한가인에게 속리는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 6년 만의 컴백 ‘리메이크작’과 도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장동건과 한가인은 어떤 연기로 시청자들을 매료 시킬까. 장동건은 6년 만에 선택한 작품은 미국 NBC 유니버설의 ‘슈츠 리메이크’작이다. ‘슈츠’는 세계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리메이크를 시도했다. 장동건이 출연을 결정했다는

이유 만으로 ‘슈츠’는 기획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장동건은 최근 6년 간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TV에서 얼굴을 비춘 건 SBS ‘신사의 품격’이다. 당시에도 신드롬을 일으키며 장동건 열풍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로 장동건은 TV에서 지척을 감했고, 스크린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다. 장동건은 6년 만에 ‘슈츠’를 선택한 만큼 연기에 칼을 갈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는 ‘슈츠’에서 주인공 최강석 역을 맡았다. 최강석은 대한민국의 최고 로펌의 전설적인 변호사. 성공한 남자의 카리스마와 여유를 동시에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매력적인 남자다. 제목이 ‘슈츠’인 것 처럼 슈트발도 제대로 보여 줄 예정. 25일 첫

방송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되는 장동건의 스틸사진은 여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이번엔 어떤 신드롬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한가인도 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한가인이 선택한 작품 역시 장동건과 마찬가지로 리메이크작이다. 지난 2008년 영국 BBC에서 방송된 동명의 드라마인 ‘미스트리스’. 이 작품은 2013년 미국 ABC에서도 리메이크 된 바 있다. 한가인은 남편이 죽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주변에 미스터리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가 살아있다고 믿는 인물인 ‘장세연’ 역을 맡았다. ‘미스트리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작품이 굉장히 흥미진진했다. 대본의 짜임과 구성이 새로워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긴장감 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랜만에 두 톱스타가 배우로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의 6년 만의 복귀가 환영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램페이지’ 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곤지암’ 250만 돌파

영화 ‘램페이지’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5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스오피스 1위는 27만4340명을 동원한 ‘램페이지’(감독 브래드 페이튼)가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45만7261명이다. ‘램페이지’는 거대 기업의 유전자 실험 중 우주에서 추락한 의문의 가스통 흡입해 거대 몬스터가 된 친구 고릴라와 괴수들의 광란을 막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재난 영

화다. ‘코어트 플레이스’(감독 존 크래신스키)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8만8485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으며, 누적 관객수는 19만5450명이다. ‘메디 플레이어 원’(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전날 대비 한 계단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8만7750명의 일일 관객을 동원했고, 이에 누적 관객수는 199만9493명이 됐다. ‘바람 비람 비람’(감독 이병헌)은 4위에 머물렀다. 8만6145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누적 관객수는 95만2007명이 됐다. 5위 ‘곤지암’(감독 정병식)은 이날 7만6300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251만4567명이 됐다. ‘곤지암’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공포 영화다. 개인 방송을 진행한다는 컨셉으로 전개되며 배우들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며 ‘체험 공포’라는 특징을 담은 작품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음력 3월 1일)



▶**소세** 의욕이 넘쳐 모든 것 왕성하나 속 시원히 끝나는 일은 없을 듯하다. 1, 9, 10월생 애정에 불 타니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다. 자동차를 점검하라. 기, 오, 피 성씨 남성은 장애가 있으니 서류, 문서 특별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과음하면 내일은 없다.



▶**세끼** 움직임이 순조롭다 해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 리, 오 성씨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사실을 알고, 한층 높더운 곳을 향해 달려야 할 때다. 3, 6, 11, 12월생 중 태, 증 성씨 남을 가르치는 학자, 강사는 불륜 관계 조심하라. 마음으로 내쳐야 할 때다.



▶**홍승희** 3, 5, 7월생 건강이 좋지 않으니 사업도, 가정도 흔들린다. 잠시 휴식하라. 기, 리, 오 성씨 즉흥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서 봐 동쪽이면 좋겠다.



▶**세끼**의 직장 일을 소홀히 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 하니 최선을 다하라. 5, 8, 11월생 까마귀 고기를 먹어도 꼭 기억하라. 불안하면 메모하라. 가족, 친지와 의견 대립했다면, 기, 리, 오 성씨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북쪽이 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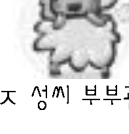
▶**용마** 1, 3, 7월생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하고, 온전해도 뚝이니 자가용도 굴리고 싶은 욕심도 있다. 가급적 검은색은 피하라. 파란색이 좋다. 사업에도, 가정에도 도움이 된다. 기, 리, 오 성씨 와이프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피곤을 씻어주겠다.



▶**세끼** 실력을 과신하는 것은 삼가라. 시간이 지나면 들뜬 나기 마련이다. 8, 9, 11월생 의뢰심을 버려라. 내 일은 내가 밀고 나가는 것이 내 미래를 키우는 길이다. 미혼 기, 리, 오 성씨는 동쪽과 서쪽에서 새로운 애정의 싹이 트겠다.



▶**용마** 사업을 하려면 편물도 흘려야 하는 법이다. 중도 포기하지 말라. 기, 리, 오 성씨는 리더십이 강하니 사업을 변동하기엔 알맞은 시기다. 6, 8, 9월생 동업을 하려면 절친한 친구와 하지 말라.



▶**세끼** 교만에 빠져 사업도 망치는 격이다. 1, 2, 6월생 자기 과신은 적당히 하라. 미래를 위한 길이다. 늦게 시작한 사업인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새로운 후계자를 키워야 할 때다. 기, 리, 오 성씨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라.



▶**홍승희** 기, 리, 오 성씨 사과와 달콤한 맛이 있다면 굴의 새콤한 맛도 있는 법이다. 네게 맞는 적당한 곳에서 안정을 찾으라. 3, 7, 9, 12월생 짝과 굴며 모든 일에 대처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 좋다.



▶**세끼** 기, 리, 오 성씨 작은 회사도 장점이 있는 법이다. 내 능력을 키우고 많은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듯하다. 담담히 받아들이라. 기, 리, 오 성씨 남쪽에서 금전적으로 도움 줄 자 나타난다.



▶**세끼** 기, 리, 오 성씨 자녀 탈선 위기가 있다. 내 자식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기, 리, 오 성씨 항상 열쇠를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이 손재수를 막는 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내 미래를 미루는 것이다. 가려는 사람은 놓아줘야 한다.



▶**세끼** 기, 리, 오 성씨 변동 수 있다.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길 듯하지만, 이사는 시기상조다. 기, 리, 오 성씨 동쪽과 서쪽에서 액운이 뻗치니 앞만 보고 가라. 같은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남녀 관계로 구설수 있으니 조심하라.